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선한
영향력
수어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핫이슈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堂堂하게

한눈으로 보는 이민정책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2021년 9월부터 본격 시행

부서를 찾아갑니다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출입국 사람들

56년 역사 지닌 경상남도 거점 기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수어 아티스트
후지모토 사오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항해를 생각하다

바다를 항해하는 일은 위험천만합니다.

풍랑을 만나 좌초되거나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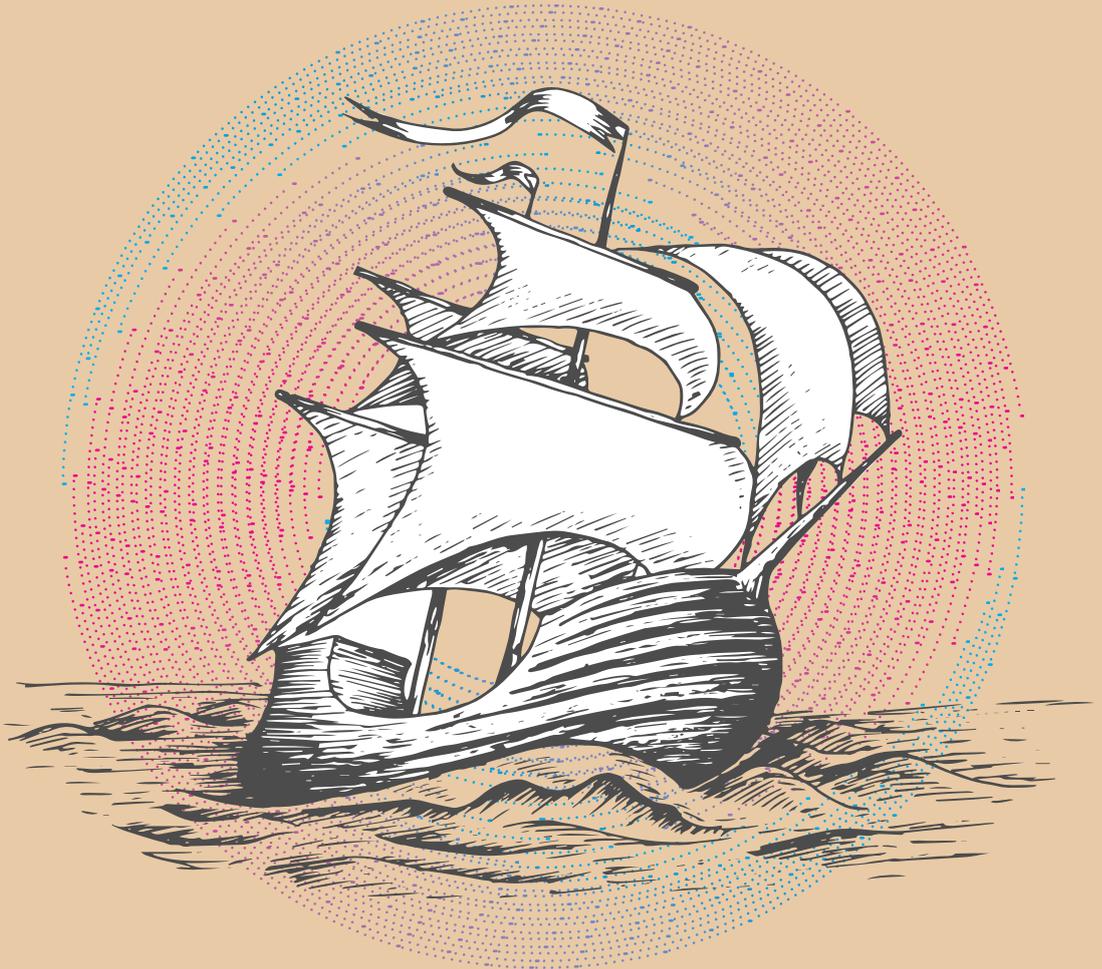
그래서 배를 함께 탄 선원들의 목표는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배가 출발하면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으는 것도

이처럼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또는 어떤 집단에서 어울리기 힘들 때 포기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떠올려보세요. 배에 오른 선원처럼 말이죠.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뜨거웠던 지난여름 동안 흘리신 땀의 결실을 알차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소중한 이들을
이웃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여
우리 정부에 협조했다는 사실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우리 사회에 포용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1일, 약 4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출입국심사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가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Dear
readers,

This year's scorching heat is finally showing signs
of going away and we are starting to see clear blue
autumn sky with cool soothing winds. I hope all the
efforts you invested during this summer bear fruit.
This August has seen an extraordinary event leading to
our decision to welcome people from a country in need.
Instead of turning a blind eye on them, we made a bold
move to embrace Afghans who were at the risk of losing
their lives for providing assistance and cooperating
with the Korean government. By embracing them
as our neighbours, we aimed at realizing the noble
valu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We,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will put our best attention and
effort in helping them to make Korea as their adopted
home and stand on their own feet.
Also the first day of September has witnessed the launch
the K-ETA system after four months of testing period.
Korea, a country already renowned for its world-class
immigration control, can now facilitate spotless and agile
border control with the implementation of K-ETA.
With only a couple of months left in 2021, we are firmly
committed to supporting a society where Koreans and
foreigners can coexist. I sincerely wish this fall to be
filled with happiness and joy.
Thank you.

Commissioner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Lee, Jae-yoo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1 vol. 57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1년 9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에이치썸(02-2269-0309)

06 오늘도 행복해

우수인재 점수제
거주 비자에서 귀화까지



08 핫이슈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堂堂하게

12 한눈으로 보는 이민정책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2021년 9월부터 본격 시행

15 숫자로 말해요

우리나라 연도별 난민 현황



16 한국의 [M:E]

“선한 영향력 전하는
수어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후지모토 사오리



20 지구야 놀자

인류의 특명,
바다를 구하라



26 출입국 사람들

56년 역사 지닌 경상남도 거점 기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22 공존 에티켓

레스토랑 vs 호텔
팁, 얼마를 줘야 할까?

23 그곳이 알고 싶다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
대학교 부설 다문화센터

30 칭찬합시다

오준석 계장
배이진 계장

24 부서를 찾아갑니다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32 KIS NEWS

34 EVENT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gxbpPT

한국의 매력은
아직 반도
못 보여줬어요.

우수인재 점수제 거주 비자에서

일리아 벨라코프
(러시아에서 귀화)

귀화까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의 일리아 벨랴코프 씨가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일리아 벨랴코프 씨는 2016년에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는 귀화하기 전에 우수인재 점수제 거주 비자 (F-2)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우수인재 점수제 거주 비자는 글로벌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그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타 비자에 비해 부여받는 체류 기간이 길고 구직, 창업 등이 자유로워 많은 외국인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일리아 벨랴코프 씨는 당시 국내 거주기간, 직장, 연봉,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등 자격 요건을 우수한 점수로 충족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어학연수(D-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년 가까이 한국에 살았기에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는 일리아 벨랴코프 씨. 그가 바라본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는 우리나라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콘텐츠가 많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POP이나 가전제품처럼 한정된 아이템으로 외국에 알려져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만이 자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아직 절반도 노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정작 국민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나 한국의 건축, 한국의 철학과 라이프스타일 같은 요소들은 외국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역사와 건축,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의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현장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하게



25인의 특별한 독립유공자 후손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8월, 법무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대해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을 선물했다. 이 후손들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의 자랑스러운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에 의해 지금까지 외국 국적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이들로, 법무부가 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기로 한 것이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은 2006년에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이 수여식을 통해 대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외국 국적 신분으로 타지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법무부는 이러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주기 위해 매년 국적증서 수여식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에도 2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민국 국적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은 올해까지 1,252명으로, 이들은 기존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올해에는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중국 17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2명, 쿠바 1명)이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이날 국적증서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간소하게 치러졌지만, 법무부를 시작으로 전국 5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서울, 인천, 수원, 대전, 서울남부)가 연이어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릴레이 국적증서 수여식을 최초로 개최해 전국적으로 이날의 취지와 의미를 뜻깊게 공유할 수 있었다.





목은 설움을 날린 수여식 현장

이명순(1986년 독립자) 선생의 증손과 심용준(1998년 독립자) 선생의 증손 등 독립유공자 8인의 후손 10명이 지난 8월 12일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법무부를 찾았다.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후손이지만 안타까운 운명으로 오랜 기간 외국 국적 신분으로 살아왔기에 수여식에 참석하는 이들의 눈빛에는 기대감과 긴장이 공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함께 수여식장은 금세 화기애애한 기쁨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만 해도 다소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애국가를 제창하자 긴장감이 풀린 듯 후손들의 입술에서는 희망찬 목소리가 밝게 울려 퍼졌다. 국적증서 수여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자 분위기는 더 무르익어갔다. 박범계 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하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김원웅 광복회 회장도 영상을 통해 이날부로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갈 후손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멀리서도 축하 선물이 도착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한 운암 김성숙과 중국인 항일 독립운동가 두진웨이(杜君慧) 부부의 손자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두닝우(杜宁武) 씨가 ‘아리랑 판타지’를 연주하는 축하 영상을 보내온 것. 후손들은 아리랑 연주를 들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다시 실감한 듯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날 가장 특별한 손님은 독립유공자 월리엄 린튼(2010년 애족장)의 후손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특별귀화 1호 인오한 박사였다. 인 박사는 자신과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뒤늦게나마 이날 참석한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인 박사는 축사를 통해 “오

들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된 여러분은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란다”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연세대 교수이면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박사는 이번 수여식을 기념해 조선일보에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선물>이란 제목으로 기고문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이 갖는 국가적인 가치와 의미를 강조한 뒤 “유공자들의 후손들에게 특별귀화를 통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행사를 지속함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유공자들의 희생을 계속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이 같은 노력도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희망했다.

서로에게 전하는 고마움

이날 참석한 후손들은 심용준 선생의 후손 심세영 씨가 대표로 나와 국민선서를 한 뒤 한 명씩 단상으로 나와 국적증서를 수여 받았다. 사회자에게 호명돼 앞으로 한 사람씩 나올 때마다 박 장관은 이들을 기억하려는 듯 이름을 일일이 직접 불러주며 국적증서를 전달했다. 증서를 전달할 때는 축하와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증서를 손에 든 후손 몇몇은 그간의 목은 감정이 머릿속을 스쳐간 듯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어학연수와정을 이수 중인 박민영 선생의 증손은 이날 “항상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증조부님께서 평생

동안 실천했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고, 제가 가진 것을 나눠 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명순 선생의 증손도 “할아버지가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섰고 할아버지가 있어 한국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한국 국적을 받아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박 장관이 함께 태극기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공식적인 행사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고마움을 나누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 박 장관과 후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동안 서로에 대한 마음을 나눴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광복의 의미를 잊지 않고 올바른 역사를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역시 그 일환으로, 지난 광복절 주간(8/9~8/27)에는 청사 내에 <대한민국을 지킨 9인의 독립유공자와 그 얼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있습니다.> 배너를 설치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 홈페이지와 하이코리아 등에 게시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내년 8월에는 더 많은 해외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웃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K-ETA) 제도 2021년 9월부터 본격 시행



미국의 ESTA, 캐나다의 ETA, 뉴질랜드의 NZeTA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해당 국가행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고, 외부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한 국경을 만드는 전자여행허가 제도! 우리나라도 약 4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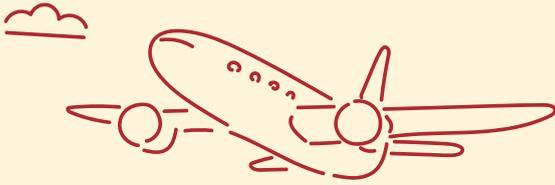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K-ETA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이 출발 전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www.k-eta.go.kr)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화된 국경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유럽 연합(EU)도 2022년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입국심사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K-ETA 시행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편리한 입국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좋을까?

- 1 K-ETA 허가를 받고 한국에 도착하면 출발 전 미리 제출한 K-ETA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심사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K-ETA를 받은 외국인들은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을 할 수 있고 맞춤형 입국심사를 받아 심사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 2 외국인이 사전에 제출한 K-ETA 신청 정보를 K-ETA센터에서 비교·분석하여 코로나19 등 감염성질환 보유 여부, 과거 범위반 여부 등을 확인,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을 구축합니다.
- 3 국내 체류지, 방문 목적, 국적별 선호 국내 여행지 정보 등 누적된 K-ETA 신청 DATA와 기존 외국인 관련 자료를 연계, 빅데이터(Big Data)화하여 안전한 국경관리는 물론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ETA 신청은 이렇게!



- 현지 공항 항공기나 선박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컴퓨터) www.k-eta.go.kr (모바일) K-ETA(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쉽고 빠른 모바일 앱 사용 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ETA'를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2. K-ETA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신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권의 인적사항 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반영
3.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얼굴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게 K-ETA 신청 가능

-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신청인의 e-메일로 허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 가족단위나 단체여행객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 K-ETA 허가는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K-ETA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K-ETA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K-ETA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K-ETA 신청 관련 안내, 외국어 상담(이메일) 신청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K-ETA 홍보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보세요. K-ETA 신청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민자 멘토단 파비앙, 크리스티안, 아즈마가 성우 더빙한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어 영상부터 한국어, 영어, 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만나보세요.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K-ETA) allows foreign nationals, who were allowed to enter Korea without a visa, to be authorized to travel to Korea by submitting their personal and travel-related information on the K-ETA website(www.k-eta.go.kr) prior to their departure. Countries with advanced border control system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have already implemented the system, and the European Union(EU) also plans to launch the service in 2022. Korea, a country already renowned for its world-class immigration system, now provides higher level immigration servi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K-ETA.



How to Apply for K-ETA!



- Travelers need to apply for K-ETA through the K-ETA website or mobile app at least 24 hours prior to boarding a plane or ship. (PC) www.k-eta.go.kr, (Mobile) K-ETA (App Store and Google Play Store)

Quick and Easy Application through Mobile App

1. Search and download the 'K-ETA' app from the Google Play Store or App Store.
2. Open the K-ETA app and take a picture of your passport bio page with your mobile device. The basic information including nationality, name, date of birth, sex, passport no. will automatically appear on the application form.
3. The mobile app allows travelers to conveniently apply for K-ETA as they will also be able to take an ID photo (facial image) with the camera on the device.

- The applicant will be notified of the K-ETA application results via e-mail after assessment of the submitted information.
- For family and group travelers, one person can apply for K-ETA on behalf of up to 30 applicants.
- Once approved, K-ETA will be valid for two years.



Want to Learn More about K-ETA?

Do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K-ETA? The K-ETA website provides various information including an application guide for K-ETA, as well as consulting services in foreign languages(e-mail).



Check Out the K-ETA Video Clips!

Come visit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s official YouTube channel to check out videos on how to apply for K-ETA. The video clips are available in Korean, English, Thai, German, Spanish, and Russian and the French, Spanish, and Japanese videos were dubbed by members of the Immigrant's Mentor Club, Fabien, Christian, and Azu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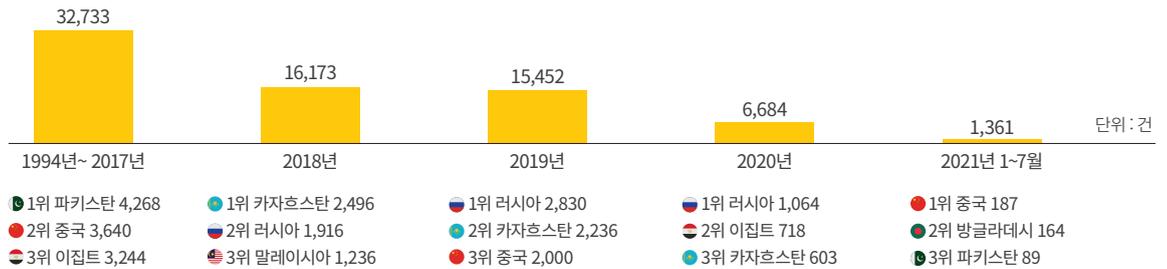
궁금한 난민 이야기

우리나라 연도별 난민 현황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난민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게 난민인정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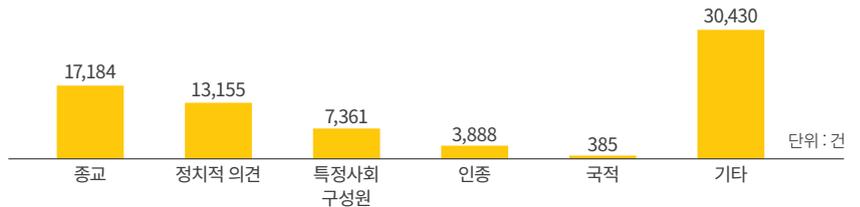
국적별 난민신청 현황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하는 이들의 국적은 어디일까? 기간별 상위 3개 국가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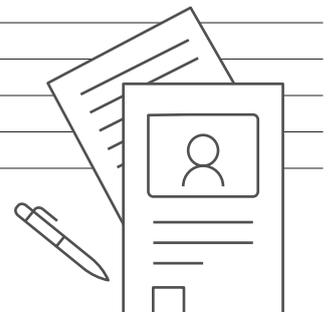
난민신청 사유

1994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난민신청을 한 이들의 사유 중 상당수는 종교와 정치적인 문제였다.



최근 5년간 난민신청 심사 결과

연도	심사 완료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2017년	5,874	121	316	5,437
2018년	3,955	144	508	3,303
2019년	5,069	79	231	4,759
2020년	6,243	69	154	6,020
2021년 1~7월	5,370	28	40	5,302



선한 영향력 전하는 수어(手語)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후지모토 사오리

인터뷰를 위해 만난 그녀의 정강이 이곳저곳이 멍들어 있었다. 얼마 전 다쳤다는 손가락은 여전히 부기가 빠지지 않아 움직임이 어색했다. '여자 축구'를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 연습하다가 생긴 영광의 상처들이다. 그녀는 해당 방송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그녀를 설명할 때 '축구'보다 앞에 뒤편 할 키워드가 있다. 바로 '수어'와 '수어 아티스트'이다.





사진 출처 : SBS TV <골 때리는 그녀들> 방송 화면 캡처

**외국인 최초로
수화통역사 시험에 합격하다**

여자 축구를 소재로 한 SBS TV <골 때리는 그녀들>이 인기다. 개그맨, 모델, 배우 등 그룹별로 결성된 여자 축구팀이 서로 팀 대결을 펼쳐 우승팀을 가리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팀 중 하나가 바로 재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월드클라쓰’ 팀이다. 그중에서도 빠른 발과 투지 넘치는 열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선수가 일본인 후지모토 사오리 씨다. 최근 방송을 통해 유명해졌지만 그녀가 국내에서 ‘수어 아티스트’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 수어 아티스트는 수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수화통역사와 달리 랩이나 춤 등 보다 확장된 창의적인 표현 방식으로 수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그녀가 처음 수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글로벌 홍보대

사를 하면서다.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던 그녀는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행을 택했다. 고등학생 시절 자매결연 학교 방문을 위해 한국을 처음 찾은 이후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꾸준히 공부한 그녀다. 2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그녀는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국에 와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글로벌 홍보대사를 지원한 건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문화교류 메신저가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경기장에서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된다.

“장애인 선수들이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오투기처럼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경기장에서 농인 선수들 곁에서 수어를 하는 통역사의 모습을 봤는데, 눈에 땀 수가 없었어요.”

한국수어를 배운다면 희소가치가 있는 재한 외국인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



에 그녀는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기에 자신이 있었는데,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또 다른 문제였다. 이 둘은 어순과 문법체계가 달랐고, 수어가 손은 물론 표정, 몸의 방향, 공간 사용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소통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한참 애를 먹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낸 그녀는 지난해 외국인 최초로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시험 필기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 올해 실기시험도 볼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 축구 연습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응시를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벽 없는 콘텐츠를 만든다

수어 아티스트로서 그녀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방탄소년단(BTS)의 <Dynamite> <ON>, 이적의 <당연한 것들> 등의 대중음악을 그녀만의 수어와 안무로 표현한 유튜브 영상이다.

“BTS의 음악에는 세계적인 마음을 사로잡는 철학과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수어 아티스트로서 BTS 음악을 단순히 수어로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숨겨진 의미를 강조하거나 재해석하고, 때로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아예 바뀌서 표현하는 창작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제가 영상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농인과 청인, 비장애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대신 수어로 소통하는 농인의 콘텐츠에는 오디오가 없고, 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청인의 콘텐츠에는 비주얼이 강조되지 않는다. 이처럼 둘의 콘

텐츠에는 괴리가 있고, 비장애인 입장에서 농인과 청인의 콘텐츠 모두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녀는 농인과 청인, 비장애인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다. 다 함께 즐기기에 ‘음악’ 콘텐츠가 가장 적합했고, 철학과 메시지가 강한 BTS 음악이라면 흥미로운 수어 퍼포먼스를 덧입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수어 동작을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안무로 창작하는 과정은 그녀에게도 좋은 영감을 줬다.

그녀는 수어 아티스트로서 유튜브 활동 등 개인활동을 병행하면서 현재 한글팀(한국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아티스트팀)의 멤버로도 무대에 올라 많은 사람과 감정과 생각을 공유한다. 또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글로벌 홍보대사, 한국국제관광전 홍보대사,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홍보대사, CSR포럼 홍보대사 등 여러 기관의 홍보대사 경력도 갖고 있다.

첫 번째 축구 감독은 최진철 감독이 아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출연을 결심한 것도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였다. 이왕이면 잘하고 싶어 그녀는 ‘월드클래스’ 팀 합류 오디션을 보기로 결정한 날부터 매일 한강 둔치에서 자신의 소속사 대표에게 축구 강습을 받았다. 그녀는 강습 중에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도 털어냈다. 어느 때처럼 한강에서 소속사 대표에게 축구를 배우던 어느 날, 마스크를 쓰고 조깅을 하던 한 남자가 그들 곁에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 남자가 소속사 대표님에게 다가오더니 축구를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직접 올바른 축구 연습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남자가 축구 연습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스크를 벗었을 때 사오리 씨와 소속사 대표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바로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현 강원FC 대표이사)였기 때문이다. 그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었는지, 그녀는 월드컵라스트 팀 선발전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진철 감독의 ‘원픽’으로 팀에 합류했다. 사오리 씨는 이영표 감독과는 훗날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상대팀 선수와 감독으로 만나게 된다.

농문화에 대한 이해 높이고파

뒤늦게 선택한 한국행이었기에 메신저가 되겠다는 목표를 위해 그녀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 웬만해서는 친구도 잘 만나지 않고, 여행을 다닌 기억도 딱히 없다. 평소 즐겨 찾고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질문에 ‘한강’이라

는 담백한 답을 내놓았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에 내려서 서울로 진입할 때 한강이 보이면 한국에 온 걸 실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강을 보면 그때의 설렘도 생각나고,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의 초심도 다잡을 수 있어요.” 어렵게 한국행을 결정했고, 이제는 한국에서 수어 아티스트라는 타이틀로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있는 후지모토 사오리 씨. 그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소통을 해나가고 싶다.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일본인은 물론 한국인과 소통할 수 있게 됐고, 한국수어를 배운 뒤에는 한국에 있는 38만 명의 농인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게 된 점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수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많은 분이 저로 인해 수어가 농인들의 모국어라는 인식, 농문화에 대한 이해, 수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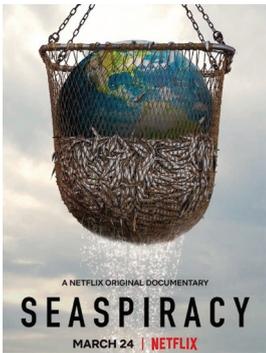
인류의 특명, 바다를 구하라

심각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해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누군가는 감시자 역할을 하며, 어떤 이는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는 데 고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말이다.

바다를 둘러싼 음모, <씨스피라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사>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무너져가는 바닷속 이야기를 다룬다. 인간의 어업 경쟁 자라는 이유로 끔찍하게 학살당하는 돌고래, 삭스핀을 위해 지느러미가 잘린 채 죽어가는 상어들, 무분별한 어업으로 매년 사라지는 2조 7천억 마리의 물고기들과 물고기 배설물이 없어 죽어가는 산호들까지. 이 다큐멘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불법 저인망어선이 큰 그물 이용해 바다 생태계를 불도저처럼 짓밟고 있지만, 이들을 감시해야 할 환경단체들이 어업협회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 때문에 문제를 좌시하고 있다고 고발하기도 한다. 지구 환경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마주할 때마다 참담함을 넘어 두려움마저 들지만, 사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큐멘터리가 끝나면 금세 그 심각성을 망각해버리는 우리 모습일 것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사> (사진 출처 : 넷플릭스 홈페이지)

해양쓰레기 청소선이 달린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문 청소선도 ‘열일’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인터셉터’는 무인 선박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선이다. 대부분의 해양쓰레기가 강에서 바다로 흘러들어 가기에 인터셉터의 활동구역은 주로 강이다. 인터셉터는 강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끌어올려 수거한다. 하루에 수거하는 양은 무려 50톤 가량이나 된다. 프랑스의 ‘망타’ 역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 청소선은 길이 56.5m, 1900톤급 선박으로, 한 해에 5,000~10,00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한 쓰레기는 해당 선박의 항해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부족한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의 친환경 에너지로 충당한다. 청소선이 외국에만 있는 건 아니다. ‘경기청정호’는 지난해 경기도 연안과 수중에 침적된 폐기물을 청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의 첫 바다청소선이다. 연간 150일 정도 출항해 한 번에 100톤의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고 굴삭기, 크레인 등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는 물론, 입체 음파탐지기와 무인비행체 드론 등의 첨단 장비까지 보유해 체계적인 수거가 가능하다.

경기도의 바다청소선 ‘경기청정호’ (사진 출처 : 경기도 공식 블로그)



패션, 바다와 만나다

미국의 패션 스타트업 ‘판게아(Pangaia)’는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으로, 디자이너는 물론 과학자와 예술가까지 함께해 제품을 만든다. 미역을 활용한 섬유도 이들의 작품이다. 이들은 미역 입자가 내장된 유기 면사와 라이오셀의 혼합물로 만든 해조류 섬유를 개발해 제품화했다. 특히 이 섬유는 물이나 매립지 등에서 생분해되어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바이오소재 회사 ‘알지니트(AlgKnit)’는 다시마 중에서도 대형 갈조류인 켈프(Kelp)를 원료로 친환경 섬유를 만든다. 켈프는 바닷속에서 독소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을 하는 조류로, 켈프로 만든 섬유는 강도가 강하면서 생분해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 ‘바이오닉(Bionic)’은 바다에 버려진 페트병에서 추출한 섬유 소재 ‘바이오닉 안’을 개발했다. 이들은 이 친환경 섬유로 스노보드 재킷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H&M 등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와 협업하기도 했다.



대형 갈조류 켈프로 만든 친환경 섬유
(사진 출처: 알지니트 공식 유튜브 채널)

담배꽂초 수거제를 아시나요?

놀랍게도 해양오염의 주범 중 하나는 담배꽂초이다. 담배의 90%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진 필터로 되어 있는데, 이 필터가 바다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미국 해양환경보호단체 ‘Ocean Conservancy’에 따르면 이들이 수거한 해양쓰레기 1위가 담배꽂초였으며 그 양이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의 2배에 달했다.

우리나라 역시 담배꽂초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서울 강북구는 ‘담배꽂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담배꽂초가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 담배꽂초 수거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꽂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을 주는 제도로 1g당 10원, 월 최대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레스토랑 vs 호텔

팁, 얼마를 줘야 할까?

외국에 나갈 때마다 팁 문제로 고민에 빠진다.

‘얼마를 줘야 하지?’ ‘너무 적게 준 걸까?’ ‘너무 많이 준 건 아닐까?’ 이제 그만 고민하자.

레스토랑에 갔다면

“음식값의 10~20%가 적당, 유럽에선 계산서를 확인”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외국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음식 가격의 10~20%를 팁으로 지불한다. 여기서 음식 가격이란 텍스(Tax)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음식을 먹었다면 10~20달러를 내면 적당하다. 팁은 서버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입이기에 팁을 주지 않는 건 실례일 때가 많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서버들은 ‘팁 노동자’로 다른 분야의 근로자보다 시간당 수당을 적게 받는 대신 자신의 담당 테이블에서 나오는 팁으로 소득을 올린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레스토랑에서는 계산서에 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계산서에 ‘Service Charge’(영국)나 ‘Service Compris’(프랑스)라고 적힌 문구가 있다면 팁까지 함께 계산됐다는 뜻이다.

팁이란 자신에게 서비스해준 사람에게 주는 대가이므로 푸드코트, 패스트푸드점처럼 손님이 직접 음식을 가져오는 곳에서는 주지 않아도 된다.

호텔이라면

“포터에게 짐가방 하나당 2달러를 팁으로”

호텔에서 팁을 줘야 하는 대표적인 대상은 셔틀 운전기사나 포터, 룸메이드이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셔틀버스를 이용했다면 짐을 옮긴 운전기사에게 팁을 줘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보통 5달러 정도가 적당하다. 호텔에 도착해 객실까지 짐을 들어준 포터도 팁을 줘야 하는데, 보통 짐가방 하나당 2달러 정도를 준다. 호텔에 여러 날 묵을 경우 객실을 청소하는 룸메이드에게도 팁을 줘야 한다. 아침마다 3달러 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된다. 이때 팁은 객실 침대나 협탁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놔둬야 한다. 호텔 서비스 직원들에게도 팁은 중요한 수입원이므로 정당한 상황에서 팁을 받지 못했을 때 이들은 고객에게 나름의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객실까지 짐을 옮겨다 준 포터가 용건이 끝난 뒤에도 객실을 나가지 않고 여슬렁거린다면 팁을 제대로 줬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수건을 새 것으로 교체해두지 않는 등 객실 청소가 평소와 달리 깔끔하지 않다면 이 역시 팁 문제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

대학교 부설 다문화센터

대학교 내 다문화 관련 센터들은 교육기관의 장점을 활용하여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는 2000년대 초 급부상한 국내 이민 다문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학술 및 교육활동 등 지역대학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8년에 설립됐다. 2010년과 2016년부터 각각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대구1거점운영기관과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에서는 매년 500~600명의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센터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교육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한다. 2010년에 이민다문화 관련 국내 최초의 독립학과인 '이민다문화사회학과'를 설립한 센터는 (전)한국 이민재단 이사장과 (현)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등을 교원으로 초빙해 현장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곳에서 배출된 다문화사회전문가는 센터 내 사회통합교육 강사로 채용되어 이민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센터는 이민자 구성이 다양한 공단이 몰려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내 이민사회 변화를 연구하고, 다양한 체류자격의 이민자들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교육부의 다문화가족 복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수도권 특성화 대학으로, 국내 최초로 대학 내에 설립된 다문화가족센터이다. 센터는 다문화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이민자 및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 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중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은 9~24세의 이주배경 청소년(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포함)의 사회 적응과 청소년 발달 시기에 필요한 덕체지의 계발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수준별 한국어교육과 음악, 토탈 공예 등의 특화 교육 등을 제공한다. 무지개 Job 프로그램은 단계별,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 탐색은 물론 바리스타 자격증, ITQ자격증 과정 등 실제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참가자와 학부모에게 반응이 좋다. 다문화·탈북 유아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펼치고 있는 이곳 센터는 평택시청과도 연계해 경기도의 다문화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계획이다.



외국인 정보도 이제 빅데이터로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뜻하는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술은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할 때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이 추천상품으로 올라오는 것도, 길찾기 어플에서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최적화된 길과 소요예상 시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사용자들의 평소 사용 패턴을 데이터화하여 분석한 빅데이터 기술 덕분이다. 이제는 빅데이터 기술이 외국인 업무에도 활용된다. 이 업무를 선도할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가 지난 7월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서 첫발을 내딛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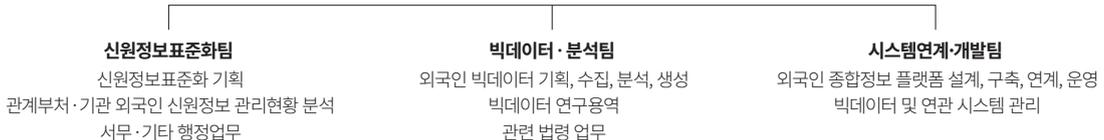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 벤처형 조직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7월 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범정부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와 외국인 데이터를 정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외국인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로 수집·분석하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에는 외국인 관련 다양한 업무 경험과 정보화 전문성을 가진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만들어갈 파급력은 그 어느 부서 못지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가 창설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명 시대, 이제 외국인은 정부 행정 업무에서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별로 외국인의 신원정보 입력 표기 방식이 다르고 외국인도 개명하거나 국적을 변경하는 등 신원 정보를 수시로 바꾸어 정부 각 부처 간 외국인 신원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원정보 공유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범죄로 인한 치안 문제나 복지제도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체계적인 범부처 외국인 정책 수립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의 주력 업무와 목표를 알려주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기본 정보(입·출국, 체류, 국적, 사범 등)와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기관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교육·소비·관광 등의 정보를 신원정보 표준화를 통해 연계·융합하여 범정부 외국인 빅데이터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빅데이터는 외국인 범죄 예방 및 세금 체납 방지, 인구감소에 대비한 외국인 정책 수립,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익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는 현재 범부처의 외국인정보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및 정보연계를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외국인종합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벤처형 조직으로 출발하여 인원 및 운영기간 면에서 제약이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하게 산재된 외국인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발 한발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추구하는, 나아가 국가의 각종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창출하는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56년 역사 지닌 경상남도 거점 기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가고파(이은상의 시)’의 배경인 마산항을 바라보고 있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965년 부산출입국관리소의 마산출장소로 개소한 이래 경상남도 내 5개의 시와 10개의 군을 관할하는 거점 기관의 역할을 곳곳하게 수행해나가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신청사로 이전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65년 마산출장소로 출발

산뜻한 건물 외관에 비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창원사무소)는 56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65년 개소한 부산출입국관리소의 마산출장소가 전신이기 때문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1970년에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이다. 이에 1971년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출입국관리주재관이 설치됐고, 1973년 마산수출자유지역 출입국사무소로 확장됐다가, 1980년 경상남도 7개의 시, 10개의 군을 관할하는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됐다. 그 후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창원으로 통합되면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렇게 마산출장소로 시작한 창원사무소는 이제 통영, 사천, 거제에 3개의 출장소를 두고 경상남도 전체(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를 관할하는 어엿한 거점 기관으로 우뚝 섰다. 창원사무소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와 각종 체류관리 업무, 사회통합 업무를 담당한다. 일본, 중국, 홍콩, 마닐라, 인도 등과의 중심 교역항으로 자리잡은 마산항과 대면하고 있는 까닭에 선박심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창원사무소 박찬순 소장은 “마산항에 입출항하

는 선박을 검색해 선원이나 승객 중 입국 규제자가 있으면 승선하지 못하도록 감시원을 배치하고,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입출국 심사를 하는 등 선박 심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선원이 선박에서 무단으로 이탈할 시 밀입국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도 창원사무소의 임무이다. 올해도 통영항 및 거제항에서 선원들이 무단 하선하는 밀입국한 사례가 세 차례 발생했다. 이에 동향조사팀이 평소 탄탄하게 다져놓은 팀워크를 발휘하여 신속하게 이동경로를 파악, 밀입국자 전원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인근에 진해 해군기지가 있어 우리 해군뿐 아니라 미군의 군함이 입출항할 시 입출국 심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체류외국인의 적응과

안전에 주력

창원사무소의 관내 등록외국인 수는 39,798명으로, 베트남인의 비중이 29%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중국인 15.7%, 우즈베키스탄인 5.9%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류자격 기준으로는 관내의 창원, 함안, 창녕, 진해 같은 공단지역이나 도농지역, 어촌의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비전문취업자가 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결혼 이민자가 16.9%, 유학생이 3.6%를 점하고 있다.

체류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통합 업무도 창원사무소의 중요한 업무이다. 창원사무소는 관내 이민자를 대상으로 공예나 요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민자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한 수제 케이크, 아시안 푸드 등을 지역 아동 보호센터나 독거노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이는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큰 힘을 보태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끼게 해준다. 박찬순 소장은 “마산 및 진주YMCA와 업무협약을 맺고 독거노인, 결손가정 아동을 돕고 있다”며 “이민자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참여의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다시 창원사무소 직원들에게 전파돼 매년 연말연시나 명절이 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선정해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창원사무소는 사회통합 업무뿐 아니라 체류외국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관내 외국인 밀집 지역과 외국인 고용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창원사무소는 지역사회 안전을 수호하고자 신속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점검반을 구성했다. 방역점검반은 외국인 밀집지역과 공간, 유흥업소 등을 순찰하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적극행정·책임행정 붐업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민원실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예약 없이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많은 편이다. 또한 비행기 운항이 제한되면서 송환해야 할 외국인을 보호하는 기간도 늘고 있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쌓일 때마다 창원사무소 직원들이 찾는 힐링 공간이 있다. 바로 탁 트인 마산항의 오션 뷰를 누리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3층의 북카페이다. 석양이 지는 저녁 무렵에는 더욱 아름다운 장관을 감상할 수 있어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직원들이 기증한 200여 권의 도서가 구비돼 있다. 창원사무소의 직원들은 북카페에서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도 좋지만 업무 과부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효율적인 직제 개편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창원사무소는 체류, 사증, 국적, 사회통합, 동향조사,

Interview

“품격 있는 출입국·이민행정 서비스 제공할 터”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찬순 소장

현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공무원 33명, 공무원 12명, 사회복무요원 10명 등 55명이 서로 화합하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국민과 함께 서로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편리하고 품격 있는 출입국·이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범심사, 보호, 선박심사 등 출입국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업무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상남도 내 5개의 시, 10개의 군을 관할하고 있어 담당 지역도 넓은 편이다. 하지만 개청 후 이제껏 과직제 없이 일해오고 있다. 현재는 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초창기 때만 해도 직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임의로 과를 나눠 일하고 있는 중이다. 박찬순 소장은 “조속히 관리과와 심사과로 직제를 나눠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과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칭찬합니다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오준석 계장님을 칭찬합니다”

칭찬 주인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오준석 계장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서 근무 중인 오준석 계장이라고 합니다. 세종로출장소에서 출장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행정 업무, 출장소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된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은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A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다가 2013년에 기증희망자로 등록을 했고 지난해 저와 유전인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기증했습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나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작년 1월에 처음으로 저와 유전인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혈액암 환자분들의 완치를 위한 노력, 힘들어하는 환자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 많이 검색해봤어요. 백혈병 환자를 다룬 소설 「가시고기」도 다시 읽었는데, 소설 속 아이가 의사에게 ‘선생님, 얼마나 더 아파야 죽게 되나요?’라고 하는 대사

가 제가 기증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기증이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환자분이 혹시 돌아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에 저와 일치하는 환자분이 또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무조건 기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제 세포를 기증받은 환자분은 현재 세포가 잘 생착되어 퇴원 후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관찰과 꾸준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만약의 경우 다시 기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다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게 되면 기증하겠다고 동의한 상태라 그때를 대비해 건강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배이진 담당관님은 제가 발급받으려는 국적상실사실증명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며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관련 인터넷 사이트도 알려주셨습니다. 또 제 아들의 국적상실 신고에 대한 문의도 본인의 점심시간까지 할애하면서 설명해주시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 중에서

칭찬 주인공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배이진 계장

❶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2019년 10월 1일부터 국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이진 계장입니다.

❷ 일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자녀를 키우며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국적취득 요건인 기본소양심사(종합평가, 면접 심사)에 매번 불합격해서 국적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을 볼 때 마음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는 성조가 6개라 한국어 발음이 어려운 데다가 가사와 자녀 양육은 물론 직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런 분들은 한국어 공부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요즘 트로트가 유행이니, 노래를 따라부르면서 공부해보세요”라거나 “남편분이 옆에서 차근차근 잘 도와주세요”라며 남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❸ 도움을 드린 민원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2019년에 국적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90세 노령의 할아버님은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국민선서 후 증서를 받아

야만 국적회복을 할 수 있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오시기에도 힘들 만큼 기력이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대신 수여식에 참석하고 할아버님은 댁에서 국민선서를 낭독한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주시는 방법으로 증서를 받았습니 다. 그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할아버님이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뭔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지금까지도 그 영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❹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 민원인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대기석에서 제가 민원인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글을 올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❺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 국적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후배님들, 유관기관 담당자들(병무청, 가족관계등록관서 등)을 대상으로 국적 전반에 걸친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직접 안내도 해보고 싶습니다.

KIS NEW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1 vol. 57

‘코로나19 확산 방지’ 체류외국인 9만여 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법무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자는 2021년 7월 9일(금) 기준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만료일이 2021년 9월 30일(목) 전에 도래하는 자이다. 이들은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에서 3개월씩 체류기간 직권 연장을 받게 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민원인의 지역 이동을 대폭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지난해에도 세 차례(2월, 4월, 12월)의 직권 연장 조치를 통해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 민원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직권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박범계 장관, 벤처형 부서를 찾아 “창의적·도전적 혁신과 적극행정” 당부



지난 8월 10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는 공직사회에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도전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벤처형 조직으로, 범정부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및 외국인 빅데이터의 공익목적 활용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장관은 직원들에게 “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엠지(MZ) 세대 직원들과 함께한 소통의 자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정책의 공익적 가치를 크게 증진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면서 “벤처형 조직에 걸맞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기존의 틀을 깨려는 자세로, 법무행정 혁신과 적극행정의 핵심부서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 시행 전 준비상황 전반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은 지난 8월 11일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를 방문하여 9월 1일 본격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K-ETA는 미국의 이스타(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이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경관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ETA 제도를 세계 5번째로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기업인 및 우선입국대상자들을 전자여행허가 대상에 포함시킨 적극행정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국내기업 관계자들은 해당 제도로 재외공관 방문 없이 신속하게 외국기업인이 입국할 수 있게 되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는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아프간인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특별체류 허가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2021년 8월 20일 기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아프간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취업을 허용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는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출국명령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때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협력



법무부가 지난 9월 3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업무협약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돕고자 개인 및 국내 각 단체로부터 기부 문의를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금품을 원활하게 아프간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법무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기부금품 지원 전달, 의료(건강검진 등)지원 및 심리상담 등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박범계 법무부장은 “금번 업무협약에 구호 물품 지원 외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 의료 봉사의 깊은 뜻도 담겨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향후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VENT

공존

함께한다는 뜻이기에,
함께하겠습니다

2021년 <공존> 가을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았던 점도, 아쉬웠던 점도,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소중한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2021. 10. 1 ~10. 22

참여 방법

-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브 계정을 팔로우(구독)!
-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물 or 유튜브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경품

의견을 주신 분 중
10분을 선정해
파리바게뜨 교환권
(2만 원)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1년 10월 29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무부는 외국인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단속 및 출국조치 등을 하지 않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의 어떠한 정보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



“The Ministry of Justice
does not execute deportation and investigation
to encourage foreign nationals
to be tested and get COVID vaccination”

- No information of illegal residents is relayed to immigration authorities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